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5. 15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5/8~5/12)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4월 비농업 부문 고용 예상치 상회, 실업률 감소 등에 경기침체 우려 감소하고 은행주 반등으로 지역은행 리스크 완화됨에 따라 위험선호 심리 강화되며 소폭 하락. 이어 미 부채한도 협상 논의 부진한 상황 지속되며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미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미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우려감 확대되자 안전자산 수요 증가하며 상승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미 4월 CPI 전월대비 1.0%p 하락으로 연준의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며 달러 약세 흐름 나타났으나, 중 4월 CPI 예상치 하회 소식에 따른 경제회복 우려 분위기 속 상승 전환. 이어 지역은행 예금감소 소식에 건전성 우려 재차 부각되자 위험회피 강화된 영향으로 상승하며 1334.5원으로 마감

달러/원 전망

- 4월 미국 CPI와 PPI가 모두 감소 흐름을 이어갔음에도 소비자 심리, 기대 지수가 경기침체 조짐을 보이지 않음을 제시한 미시간대 지표를 바탕으로, 연준의 6월 추가 금리인상 논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영향 속 안준 위원들의 매파 스탠스 지속 의지 등이 달러 강세 탄력을 다소 우위에 첨하게 할 것으로 전망
- 여기에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으로 가는 가운데 재무장관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 표명 등에 따른 영향도 단기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1,340원 근접 시점에서의 수출 달러 매도 강화 요인 및 외환당국의 경계감 강화 등이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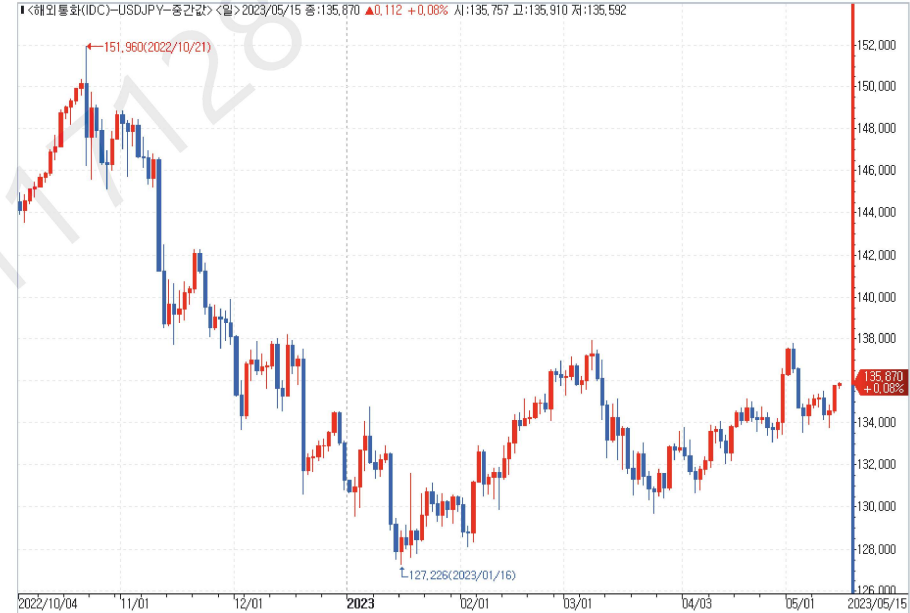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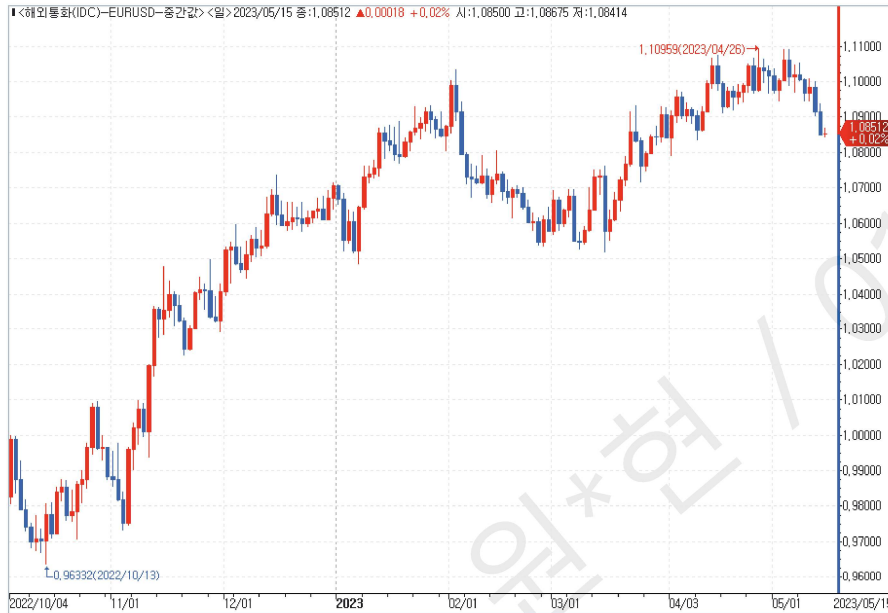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20.0	1,337.6	1,316.2	1,334.5	+14.5

예상거래범위

1,325원 ~ 1,345원



엔·유로화 동향 [5/8~5/12]



유로화 동향

- 주초, 독일 3월 산업생산, 유로존 5월 투자자 신뢰지수 부진 소식에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 약화되며 약세 흐름. 이어 ECB의 금리인상 지속 의지에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증가와 미 CPI 경계감 등으로 위험자산 수요 감소하며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들어, 독일 인플레이션 전월 대비 0.2%p 감소에도 여전히 7% 상회하는 상황에서 미 4월 CPI 소폭 하락하며 연준 금리동결 가능성 확대됨에 따라 강세 전환
- 후반 들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 강조하며 추가 긴축 예상되는 상황에도 미 부채한도 이슈에 불안감 확대된 영향으로 재차 약세. 이어 미 은행주 하락 등 지역은행 리스크 또한 재차 확대되면서 위험회피 강화된 영향 반영하며 약세 흐름 속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018	1.1054	1.0848	1.0849	-0.0169

엔화 동향

- 주초, BOJ가 지난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완화적 스탠스 유지 필요성 강조한 것으로 확인되며 약세 출발. 이어 우에다 BOJ 총재가 기대 인플레이션 개선 시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종료 가능성 언급하며 강세 전환했으나 미 4월 CPI와 연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에 약세 흐름
- 중반 들어, 미 소비자물가 다소 둔화된 모습에 연준의 금리동결 가능성 확대된 가운데 미국채 수익률 하락하며 엔캐리수요 감소한 영향으로 강세 전환
- 후반 들어, 미 정부 디폴트 우려에 CDS 프리미엄 급등하며 안전자산 수요 증가했음에도 BOJ가 현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계획 강조하며 약세 전환. 이어 미 부채한도 이슈에 따른 미국채 수익률 상승과 일 수입기업 등 달러화 실수요 매수세 영향 등으로 약세 흐름 이어지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4.8	135.7	133.7	135.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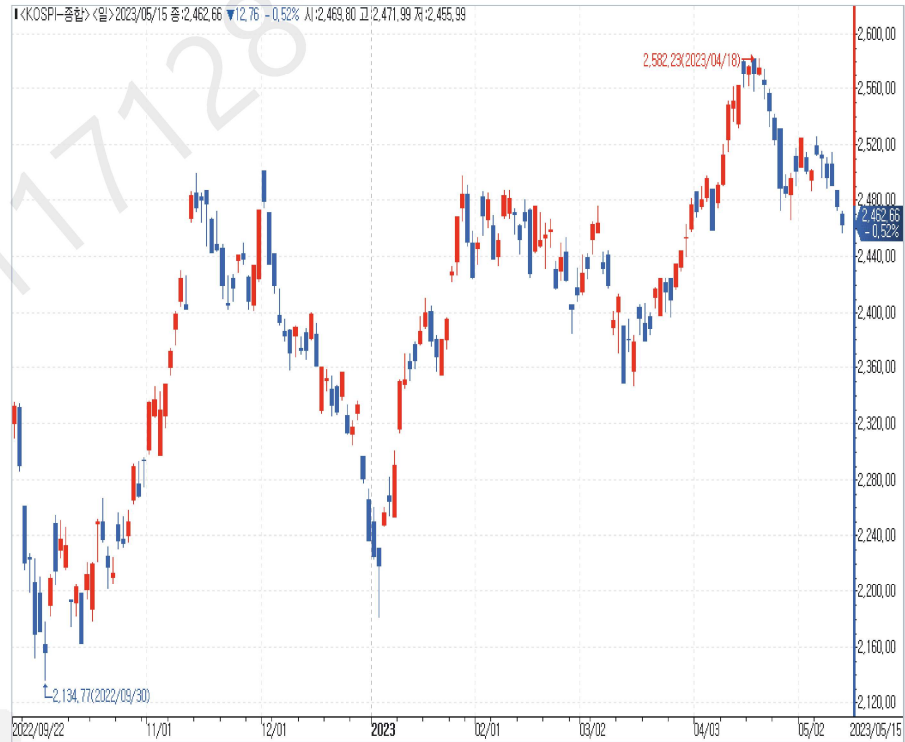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5/8~5/12)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초,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7만건 이상 상회하는 호조를 반영한 미국채금리 상승에 연동되며 전주간 상승 출발. 이어 중국 4월 수출 증가세 약화 등의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약화에 중국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 등의 영향이 반영되며 국고채금리는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국 4월 CPI가 전월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연준 매पा 우려 등 지속 가능성 등으로 상승 전환. 하지만 후반들어 미 CPI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상승세 둔화가 다소 크게 나타난 점이 호재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는 재차 하락 전환. 주 후반 들어, 미국 PPI 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미국채 수익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이에 국고채 금리도 동조화 움직임을 보이며 소폭 하락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잦아들며 따른 투자심리 개선 속에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미국 4월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개인들의 매도 강화 등으로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 CPI가 크게 시장예상보다 감소하지 못할 것이란 경계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행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투자심리를 약화시키며 소폭 하락 지속
- 후반, 미국 C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의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미 부채한도 이슈와 장 후반, 미 재무장관의 신용등급 강등 언급 등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전일에도 이어 소폭 하락 추세 이어진 후, 주 후반도 미국 부채협상 불확실성, 지역은행 위기 고조 및 이들에 의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변동성 확대 속에 큰 폭 하락 마감